

일제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준석 ■ 서울신학대학교**

〈국문요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는 3.1운동기 한국인에게 있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이자 대한독립의 모델로 등장했다. 실력양성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했던 한국인들은 193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을 민족운동에 활용했다. 한국인들에게 마사릭은 일종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인식되었고, 백낙준이 마사릭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칭송한 반면, 윤치호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높은 지적 수준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했다. 1933년 이승만의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중 마사릭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동유럽 방문기에 등장하는 정치지도자의 이름은 마사릭이 유일했다. 한국인들은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과정을 면밀히 살폈고, 독일뿐 아니라 병합을 방관한 서유럽국가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주요 사례로 활용했고, 중국에서 양국 정부는 협력했으며, 독립을 향한 열망이 공유되었다. 일제시기 한국인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은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선망으로부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기 민족독립의 의지를 상호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해갔다.

*주제어: 체코슬로바키아, 일제시기, 토마쉬 마사릭, 소콜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I. 서 론

한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문명권과 지정학적 위치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 교류와 인식적 공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따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099527).

**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교수 (E-mail: chirira@hanmail.net)

서 두 지역의 지리적, 인식적 거리가 멀었던 만큼 상호 교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국가들과 한국은 주변에 세계 최강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의 유사함, 식민지국가로서 탄압을 겪으며 국가 생존의 부침 속에서 결국 독립을 이뤄낸 국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특징은 단지 독립추구를 향한 의지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유럽에 대한 한국인들의 뚜렷한 인식, 그리고 양 지역의 독립을 향한 방법의 교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 건국을 이룬 체코슬로바키아¹⁾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특별한 것이었다. 1920-30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마사릭 전설’(김학은 2013, 54)로 인식될 정도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과 이를 견인한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지도자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각별했다. 일제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²⁾ 한국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독립의 ‘현실적 모델’(김상태 2001, 162)로 생각했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³⁾

하지만 실제 대한제국/일제시기에 작성된 기록을 확인해 보면, 체코슬로바키

-
- 1) 유럽의 중앙에서 주변 강대국의 침탈에 저항하며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던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건국할 수 있었다. 마사릭의 지휘 아래 중동부유럽에서 ‘민주주의의 섬’이라 불리며 민주주의를 구가 하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39년 독일에 병합되고, 1948년 이후 소련의 공산위성국으로 전락하는 수모의 역사를 겪었으나, 1989년 벨벳혁명으로 체제전환을 시작하며 중부유럽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1993년 우호적 방식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되었다.
 -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변국들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주로 미국, 중국, 소련과의 관계에 대해 최근 진행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3.1운동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에 대해서 New York Times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고정휴(2012), 미국에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선표(201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해 활동시기 한중간 반제국주의 연대에 대해서는 배경한(2019),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영국, 미국군과의 작전에 대해서는 한시준(2009),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소련 핵심 정치인들의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분석은 반병률(2010).
 - 3) 체코슬로바키아 측의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와 관련하여 1800년대 후반 프라하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서울에서 사망한 막시밀리안 타우블레스(Maximilian Taubles, 미국 이름 Max Taubles)를 포함한 대한제국, 일제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인들에 대한 전 주한체코대사 야로슬라브 올샤(Jaroslav Olša, jr.)의 연구(2011)는 한국-체코슬로바키아 관계사에 있어서 면밀하게 진행된 연구이며, 이 연구에 등장한 7명의 인물에 대해 한국측 자료에 의한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 또한 즌덴카 클로슬로바(Zdenka Klöšlová)는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을 중심으로 한국인들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초기 관계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했다(Klöšlová 2003).

아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윤치호(尹致昊)는 유럽, 특히 동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서까지도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를 지나며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보이고 있었고, 동유럽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치호의 동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을 그가 남긴 일기(윤치호 1994; 2001a; 2001b; 2003; 2014)를 통해 추적하는 것은 당대의 한국인들이 갖는 동유럽지역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東亞日報』를 비롯한 한국언론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3.1운동 직후 독립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십자가당사건에 대한 일제의 수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소콜(Sokol)운동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간 관계는 상호 송신한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영환(高永煥), 김구(金九), 배민수(裴敏洙), 백낙준(白樂濬), 서재필(徐載弼), 송진우(宋鎭禹), 이승만(李承晩), 임병직(林炳稷), 조병옥(趙炳玉), 조소양(趙素昂) 역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연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일제시기에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분명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독립의 모델로 인식하고, 독립의 의지와 방식을 상호 교류하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일제시기 자료들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첫째, 대한제국기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인들의 인식,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중부유럽 신생독립국으로 등장한 체코슬로바키아는 한국인들에게 동경과 독립방략의 새로운 모델이었음에 주목한다. 둘째,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건인했던 건국지도자 마사릭(Tomáš Masaryk)과 비운의 대통령 베네쉬(Edvard Beneš)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졌던 인식을 정리한다. 셋째, 수데텐(Sudeten)지역의 독일 할양,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강제병합에 대한 한국인들의 면밀한 인식과 제2차세계대전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양국의 독립을 향한 투지의 공유를 1차사료에 의해 확인한다.

II. 일제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

1. 대한제국기 윤치호의 동유럽 인식

근대 지식인 중 동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입장을 표명한 윤치호의 서구 인식은 서구의 종교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1887년 기독교 개종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윤치호에 있어서 기독교 개종은 인적 종교관의 변화뿐 아니라 조선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윤치호는 “모든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다. 그것이 일을 해내기 때문이다. 기독교 중에서도 나는 개신교를 선택한다. 그것이 일을 해내기 때문이다. 개신교 중에서 나는 삼위일체론을 선택한다. 그것이 일을 해내기 때문”(윤치호 1894/01/01, 1994, 254-255)이라고 밝혔다. 윤치호에게 기독교는 미래의 환상적 위안과 안식이 아니었다. 윤치호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힘의 신앙논리에 굳게 서있었고, 도덕성에 바탕으로 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었다(민경배 1994, 234).

이러한 기독교적 배경에서 윤치호는 1888년 미국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에 입학했고, 이 때 처음으로 동유럽, 특히 폴란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그의 1889년 12월 14일 일기를 살펴보면 “강력하고 전반적인 혁명이 나라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세의 간섭이 이러한 혁명을 방해하거나 이러한 혁명을 조선반도의 폴란드화하는 적당한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폴란드화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는 나라 전체가 처해있는, 아니 차라리 잠들어 있는 지독한 침체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얼마나 자포자기적인가!”(윤치호 1889/12/14, 2003, 9)라고 하며 조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혁이 폴란드의 상황처럼 오히려 주변 국가에 의한 식민지화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현재의 조선이 겪고 있는 미개한 상황보다 나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기술하고 있었다.

1889년 12월 23일 윤치호는 무비판적인 서구문명의 옹호를 지양하고 서구강대국 중심의 횡포에 대한 뚜렷한 자신의 인식을 확보해갔다. “중국과 아편 무역한 것, 인디언이나 중국 사람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 아프리카 사람들과 노예나 술 무역한 것, 인도 정복, 폴란드 분할과 같은 강대국들의 간악한 행위는 엄격한 검열이 필요하다(모두 기독교 국가들이다)”라고 적는다(윤치호 1889/12/23, 2003, 13). 윤치호에게 중국은 조선을 속박하는 국가로만 인식했으나, 알렌(Horace Newton Allen)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중국을 기독교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국가발전이 천년이나 뒤떨어진 나라”라고 언급한 데에 불편함을 나타낸다(윤치호 1994, 91). 윤치호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미국에서 경험을 통해 아시아 또는 약소국에 대한 인종적 혐오, 차별 등과 연결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동질감과 옹호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 중국의 처지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은 강대국의 폴란드 침략과 같은 선상에 놓이며, 이상적으로 그리던 기독교 국가들의 한계를 고찰하게 된다.

윤치호는 미국문명의 정치적, 사회적 기초, 시민윤리와 같은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했으며, 그의 개혁방식은 동학혁명과 달랐다. 케네스 웰스(Kenneth Wells)는 결국 윤치호가 5년 일찍 예견했던 바대로 동학혁명은 외세가 한반도를 ‘폴란드화’하기 위한 구실이 되는 상황(윤치호 1989/12/14, 2003, 9)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케네스 웰스 2017, 99-100). 윤치호는 1896년 러시아황제 대관식 축하사절단으로 민영환과 함께 러시아에 다녀오며 폴란드에 대한 인상을 남긴다. 러시아가 지배하는 바르샤바를 경험하며 “여기는 폴란드 왕국의 수도가 아닌가. 불행한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면 웬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세 마리의 늑대들에게 물어뜯긴 양처럼 세 나라로 갈라진 왕국”(윤치호 1986/05/18, 2014, 100)의 애환을 공감하며 마치 조선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언급을 한다. 1800년대 후반 윤치호의 폴란드를 위주로 한 동유럽 인식은 한반도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서구기독교 강대국들이 갖는 한계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강대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대한제국의 서구화를 진행해야 할 이유이기도 했다.

2. 3.1운동기 새로운 독립모델의 등장: 체코슬로바키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윌슨(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3.1운동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한국인들 인식의 중심에 들어서게 한 배경이었다. 1919년 3월 1일 국민대회는 “2천만 동포의 궤기를 촉구하는 격문(檄文)”을 서울 각지에 살포했는데, 파리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을 일본이 방해했으며, 그 일환으로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미국대통령 윌슨 씨가 13개조의 성명을 한 이래 민족자결의 소리는 일세(一世)를 혼동(欣動)하여 파란(波瀾 폴란드)·에이란(愛爾蘭 아일랜드)·서극(棲克 체코) 등 12개국이 함께 독립을 하였다. 아한민족(我韓民族)인 자(者) 어찌 이 기회를 놓칠 것인가 … 궤기하라. 아 이천만 동포여!”(國會圖書館 편. 1979)라며,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독립을 주장했고, 오스트

리아-헝가리제국에 속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은 한국인들의 민족자결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일본의 『大坂毎日新聞』과 국내 조선총독부 기관지 『毎日申報』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전달되고 있었다. 『毎日申報』는 1918년 1월 11일자 ‘미대통령의 요구조건’이란 제목으로 “특별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민족의 대소를 불문하고 균일하게 정치상 독립 및 영토보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이 소개되었고 5월에서 9월까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각 민족의 독립운동이 보도되었다. 이에 일본은 1919년 1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보도통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1918년 하반기 이미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이해가 국내 지식인 사회에서 인식되었고(國史編纂委員會 1990), 그 실제적 사례가 체코슬로바키아였던 것이다.

3.1운동 시기 활동한 천도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朝鮮獨立新聞』에는 프랑스에서 온 전보가 번역되어 실렸는데 그 내용에는 “조선독립단의 대표가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12가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것”이 부당하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의 독립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번째 항으로서 “벨기에와 체코 등 소수 민족을 독립시켜 준다면 1882년 체결된 한미조약에 따라 조선의 독립도 인정하여야 할 것”(『朝鮮獨立新聞』 第六號. 1919/03/15)이라며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소수 민족의 독립을 한반도에서도 실현시켜 줄 것을 김규식(金奎植)이 이끄는 대표단이 국제사회에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이었고, 주요 사례로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다뤘다.

고종 사망 후 소집된 국민대회 문서에서 고종 사망원인이 두 궁녀의 사망으로 미궁에 빠졌으며,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계략을 꾸몄다고 밝혔다. 또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후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등이 독립했고, “돌아가신 황제와 돌아가신 황후 두 폐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나자!”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필라델피아에서 작성된 「한국의 독립」 문서에는 3.1운동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폭력을 자행했지만, 한국인들은 이성을 유지했으며, 위기의 상황에서 민족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중요한 사례로서 “체코인들은 독일의 지배로부터 벗

4) 國民大會. 1919. “嗚呼痛哉 我二千萬同胞.” 1919/03.

어나기 위해 슬라브인 특유의 비실용적 특징을 벗어버렸다”고 강조하며(한국통신부·한국친우회 1919),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 이유의 탐구가 진행됐다.

윤치호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나타낸 것은 3.1운동 이후였다. 윤치호는 1920년 7월 “일본인 친구들은 조선인들을 일본인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그것도 조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 지난 300년 동안 보헤미아 전역을 점령했던 오스트리아가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을 오스트리아인화하는데 성공했는가?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와 프로이센이라는 짐승 같은 열강에게 100년 이상 병합되어 있었지만 그 후 러시아와 프로이센에게 가장 버거운 적수가 되지 않았는가?”(윤치호 1920/07/19, 2001b, 182)이라고 기록했다. 이 시기 윤치호는 일본이 아무리 한국인들을 내재적 특징까지 모두 일본화하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며 유럽의 역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에서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후 윤치호는 본격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펠프스(G. S. Phelps. 일본 교토 YMCA 외국인 간사)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은 350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억압을 받아오면서 1) 음악, 2) 건강, 3) 단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윽고 기회가 오자,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같고 닮은 실력을 십분 발휘했다”(윤치호 1920/09/17, 2001b, 192)라고 했으며, 1920년 11월에는 “약소민족이 정치적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지성, 부, 공공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다.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손치더라도 한없이 오스트리아의 한 지방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윤치호 1920/11/14, 2001b, 201)라고 기록했다. 윤치호는 독립을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인들과 같은 실력양성은 필수적이며, 정신, 물질, 도덕적 준비 후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외부적 환경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독립으로 가는 길을 학습하고 있었다.

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시킨 러시아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은 신랄했다. 1919년 6월 윤치호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힘만 앞세우는 나라는 러시아다. 무자비하게 힘만 세우는 나라는 독일이다. 힘과 사리분별과 애정을 두루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 미국은 굳이 다른 나라의 땅을 강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 있다”(윤치호 1919/06/29, 2001b, 123)라며 미국과 러시

아를 선한 미국, 힘만 앞세우는 러시아로 극단적으로 대비시켰다.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후 윤치호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했고, 공산주의 배경이야말로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판단했다(김상태 2001, 44). 따라서 레닌과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충돌하던 국제적 상황⁵⁾에서 윤치호는 민족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볼셰비키에 대항하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해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포함한 국제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 언론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보도됐다. 1925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마사릭 박사를 암살하려는 공산주의자 2명은 경찰에게 포박되었다”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東亞日報』 1925/08/07). 1927년 언론에는 오스트리아의 노동자들의 시위가 보도되었고, “동란의 지도자인 오스트리아 공산당의 독재정치를 선포하였으니 이것은 1919년 이후 경이할 사실이라”하였다. 이 사태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노동계급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東亞日報』 1927/07/19)이라며, 중부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또 다른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인식을 표출한 인물은 조병옥으로서, 콜롬비아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 귀국한 이후 연희전문학교 교수, YMCA 이사를 지냈다. 당시 조병옥은 독립을 위해서 민족이 해야 할 것은 우선 국제적 움직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은 자유독립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는 우리 민족의 자유독립은 국제정세가 변동되지 않는 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제적 움직임에 대하여 항상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떨어져 있었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가 국제적 변동에 따라 자주독립을 얻게 된 예를 상기할 때 … 그러한 국제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줄기의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조병옥 2003, 98)이라 하였다. 조병옥 역시 윤치호와 마찬가지로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 양성이 중요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적 부분을 강조했다.

3. 1930년대 소콜운동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과 자강의 방식에 관심을 갖던 한국인들은 193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에 주목했다. 1932년 언론은 소콜운동에 대해 일종의

5) 베르사유평화체제 성립 시기 국제정치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승배, 김명섭(2012).

집단체조를 의미하며, 본래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운동으로 시작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악정을 피하기 위하여 체코 민족의 단체훈련의 방법으로서 소콜체조를 행하게 된 것(『朝鮮日報』1932)이라고 보도했다. 소콜운동은 1862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 속했던 시기 티르쉬(Miroslav Tyrš)에 의해 프라하에서 시작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조운동이자 조직이었다. 이들은 정식단체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준 군사단체로서 영향력은 상당했고, 체코의 민족운동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했다(황정식 2011, 481). 이 운동은 슬라브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어 러시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민족독립에 기여한 소콜운동은 일제시기 한인들의 민족독립의 흐름과 연계되었다. 1931년 12월 『동광』에는 소콜에 대해 “강장(強壯)한 정신은 강장한 신체로, 일꾼의 몸 튼튼부터 이러한 정신 하에 우리는 이 쏘콜란(欄)을 둔다. 쏘콜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의 신흥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민적 체육운동의 이름을 잠깐 빌려온 것이다. 건강의 습관을 양성하며 강장한 신체를 단련하며 과감의 기상을 배양하는 이 운동에 대하여 지면으로나마 공헌이 있기를 바라며, 이에 자극되어 그 실질적 운동도 크게 진흥하기를 바란다”⁶⁾라고 하며 『동광』이 선도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실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소콜운동은 보다 지역사회와 종교조직에 깊게 관여되었는데, 일제시기 애국계몽운동에 매진한 남궁억(南宮憶)은 1933년 4월 십자가당을 결성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불온사상을 전파했다는 명목으로 1933년 11월 4일 남궁억과 관련 인사를 체포했다.⁷⁾ 십자가당은 기독교,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가지의 이질적인 종교와 사상을 기독교식 삼위일체에 합일시켜, 일본제국주의에서 한민족을 해방시키고, 기독교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02/15 검색). 당시 언론은 십자가당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을 모방하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민족운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십자가당 관련 한국인 기소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신문(訊問)에서 소콜운동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 1933년 12월 14일 경성지방법원 판사 마쓰무라 후미오(増村文雄) 판사는 핵심 주동자로 파악된 유자훈

6) “조선이 낳은 10대 운동가, 쏘콜란” 『동광』 29. 1931/12/27.

7) 남궁억은 십자가당 활동으로 8개월간 투옥된 후 노령으로 석방되었지만 고문의 여독으로 1939년 4월 사망했다.

(劉子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체코슬로바키아 나라가 수백 년간의 오스트리아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 압박은 날로 격심해졌으므로 국민은 이것에 격노하여 체육운동에 이름을 빙자한 스콜운동을 일으켜 표면은 온건 단체인 것처럼 꾸미는 반면으로 백여 년간을 계속하여 사상을 주입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다른 날 독립의 기초를 굳히면서 시기를 기다렸는데, 유럽대전이 발달하여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교전하다가 패배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스콜운동 회원을 소집하여 국내를 교란하게 하여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현재에 훌륭한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것에 자극을 받아 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조선 독립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망신(妄信) …

또한 판사는 유자훈이 “박애주의에 의한 인류애, 계급제도 철폐, 천부의 자유 권리를 향유하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노동 러시아처럼 유물적으로 치우친 공산주의 사회보다 초월한 진정한 이상적 평화사회”를 구상했음을 적시했다. 십자가당의 당수였던 남천우(南天祐)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민족은 일본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유린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상정하여, “진정한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콜운동을 본받아 종교기관을 이용하고 또 무산청년을 규합”⁸⁾하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933년 11월 29일 신문에서 이기섭(李起燮)은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200여 년 간을 표면으로는 체육운동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면은 맹렬한 민족적 사상을 선전하여 기초를 굳히고 있는 중에 유럽전쟁이 일어나자 국민은 폭동화하여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 나라를 독립시켰으니 우리들도 그 방법으로 점차 기초를 굳혀 나가면 언젠가는 적당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스콜운동과 한민족 독립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는가의 질문에 대해 “내 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더 가담”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1934년 6월 신문에서 김복동(金福童)의 신문에서 판사는 유자훈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체육운동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 지 물었다. 김복동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이 운동회를 하고 있는 그림을 1932년 12월 말경이나 1933년 1

8) “판사 增村文雄 의견서” 1933년 12월 14일. 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전: 國史編纂委員會, 2001.

9) “李起燮 신문 조서.” 1933년 11월 29일. 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전: 國史編纂委員會, 2001.

월 초순경에 잡지 신동아"에서 봤다고 답했다.¹⁰⁾ 같은 날 이기섭은 소콜운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대단히 약한 나라였는데 국민이 단결하여 체육운동을 열심히 했으므로 강한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들도 무엇이든 불문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유자훈에게 들은 내용을 말했으나 독립운동과의 연계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¹¹⁾ 유복석(劉福錫)은 "소콜운동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럽대전 때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되었는데,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은 계속해서 하면 성공한다는 것"¹²⁾ 이라 밝혔고, 조선이 타락하고 있으므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소콜운동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934년 3월 송진우는 『東亞日報』에 소콜운동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소콜운동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을 살려 낸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 육체적으로 쇠약한 민족은 정신적으로 건전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 민족적 보건체육의 보급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전조선 체육단체의 통일을 갈망하는 바이다 ... 체육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오직 스포츠맨십 정신을 굳게 파악하고 스포츠맨십으로써 생활의 지표를 삼기를 바라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아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것이다(宋鎮禹 1934/03).

송진우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와 체육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 예를 든 첫 문장이나, 사례의 곳곳에서 민족과 정신, 민족의 장래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운동의 예를 통해 민족 독립과 연결시키는 심층적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십자가당사건으로 체포된 인물들의 신문 내용을 통해 당시 한국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었다. 한국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국제적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 독립했을 뿐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민족운동이 있었기에 독립이 가능했음을 밝혔다. 소콜운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긍정적 인

10) "金福童 신문조서(제삼회)," 1934년 6월 8일. 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2001.

11) "李起燮 신문조서(제二회)," 1934년 6월 8일. 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2001.

12) "劉福錫 신문조서(제三회)," 1934년 6월 8일. 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2001.

식은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9월 조선제조연맹이 결성되었고, 발전방향으로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동과 같이 국민적이고 모범적” 조직을 창설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다(『每日申報』 1945/09/29).

1930년대 언론은 체코 산업의 발전에도 주목했다. 특히, 군수공업에 대한 세계적 전망을 다룬 기사에서 “구라파대륙의 기타군수품 기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스코다 공장이다. 동 공장은 폴란드의 모든 기업, 특히 바르샤바의 비행기용 모터공장을 관리하고 있다”(『東亞日報』 1934/03/06)고 했다. 1935년 8월 25일자 『東亞日報』 1면에는 전문이 감도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뿐 아니라 신흥 체코슬로바키아가 군비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코다(Škoda)사의 최신 고사포 사진을 1면에 게재했고, 이 고사포가 중국 제19로군(十九路軍)의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것도 설명했다(『東亞日報』 1935/08/25). 1938년에는 수데텐 지역 문제를 다루며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의 전력을 비교했다. 이 기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군사력이 독일에 육박하며, 특히 스코다를 통한 세계 정상의 무기 생산국으로서 1920년부터 현재까지 현역 20만, 예비역 160만, 공군비행기 1,000대 이상의 군사력이 확보되었음을 강조했다(『朝鮮日報』 1938/09/17). 이러한 기사는 당시 정신적·신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열망하는 독립과 자강의 기반으로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선망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지도자들에 대한 인식

1. 마사릭에 대한 인식¹³⁾

그렇다면 일제시기 한국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1927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한 백낙준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 마사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마사릭이 저술한 ‘건국론’¹⁴⁾ 일독을 권했다. 백낙준은 마사릭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회의 의원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체코슬로바키아

13) 마사릭과 이승만의 인식과 사상을 비교한 연구는 김학은(2013), 양준석(2018).

14) 아마 이 책은 1927년 뉴욕에서 출간된 마사릭의 *The Making of a State: Memories and Observations, 1914-1918*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위원회를 조직했고,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여 정치, 외교, 군사적 활동을 진행했음을 기록했다(白樂濬 1931, 18). 또한 1916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가 파리에 본부를 둔 것은 파리가 세계의 수도이고, 런던대학 강사직을 가진 것은 런던이 미국과의 소통에 유리한 지역인 이유라고 기록하며, 백낙준은 마사릭의 외교전략이 서구 지향에 기반했음을 분석한다. 하지만 또한 그는 마사릭에게 있어서 독립은 외교만이 아닌, 실제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러시아군대에 많은 체코슬로바키아 포로들을 서부전선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1917년 5월부터 러시아에 도착하여 군단을 조직하였음을 설명한다(白樂濬 1931, 19).

백낙준은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을 총 9만2천 명으로 추산했고,¹⁵⁾ 시베리아를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다시 유럽전장으로 출전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당시 마사릭은 군단 이송계획 지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남만철도(南滿鐵道)'를 통해 한반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이동했다. 백낙준은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이 시베리아에서 불세비키와 전투까지 벌였다는 사실을 근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기록하며, 그 중심에 마사릭이 있었기에 이러한 시베리아 횡단과 전투가 가능했음을 기록한다.

동경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군과 불세비끼군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는 통신을 받고 아메리카로 직행하여 구주 이병을 노력하였으나, 적군으로 충돌이 심하여 필경 적군으로 더불어 전쟁까지 하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군의 서백리아(시베리아) 행군은 근대전사(近代戰史)상에 장쾌한 기록이요, 노서아(러시아)에서 된 군사상 활동도 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를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마사릭이 없었다면 누가 저 오합지졸을 조직하여 독립군을 만들어 이역만리(異域萬里) 북풍한설(北風寒雪)에 구만 여명을 동(動)할 무엇이 없었을 것이다. 오직 마사릭의 몽상과 같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군이 구주전장에 출전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다(白樂濬 1931, 19).

백낙준의 기록보다 10여 년 앞서 작성된 윤치호의 기록은 마사릭의 활동에 대한 동시대 한국인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백낙준이 마사릭 개인의 정치력,

15)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철수할 때 총 인원은 67,739명이었고, 군사 56,466명, 장교 3,004명, 그리고 아내와 자녀,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 건군(建軍)의 핵심 모체가 되었다(Bradley 1990: 156).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한인독립군들과 M1891 모신나강(Mosin-Nagant) 소총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거래했고, 이 무기는 1920년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에 대거 투입됐다.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표했다면, 윤치호는 마사릭이라는 지도자의 역량 보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결정적이었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반인들의 높은 지적 수준을 독립의 중요 요소로 판단하며 백낙준과 구별된 의견을 피력했다.

마사릭 교수가 미국에서 선전을 잘 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조선인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 이들은 유럽의 정치를 발각 뒤집어 놓은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마사릭이든 다른 어느 누구든 간에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독립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과 국제정세를 완벽하게 이용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 조선인들은 유능한 독자정부를 세울 준비를 갖추었나(윤치호 1919/12/20, 2001b, 161). [강조 추가]

윤치호는 백낙준보다 냉정하게 마사릭을 평가한다. 윤치호는 마사릭의 외교활동 성과는 분명하지만, 국민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지도자의 국정운영에 호응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정세라는 외부요인 또한 독립에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했다. 『윤치호일기』를 편역한 김상태는 이 일기가 윤치호가 구상하고 있던 독립방안의 일단이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예를 모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모델로 상정했다고 평가했다(김상태 2001, 162). 이에 대해 김학은 윤치호가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 마사릭 자신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하나의 독립 국가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였나?”라고 자문하였고, 수 세기에 걸친 타국의 지배가 의존 습관을 길러서 자치가 불가하다고 한 발언을 강조했다(김학은 2013, 52-53). 독립에 있어서 구성원이 갖는 자립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윤치호뿐 아니라 마사릭 역시 강조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2대 외무부장관 임병직은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마사릭과 이승만의 만남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과 이승만 등이 주도하여 제1차 한인회의(First Korean Congress)를 개최했고, 임병직은 9월 필라델피아 전한인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워싱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를 창설하던 시기 윌슨 대통령과 미국무부 관리들의 냉대에 모멸감을 느낀 이승만은 마사릭과 독립운동을 위해 협력했다고 기록했다.

이박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애국자인 토마스 마사릭 박사와 두 나라의 공동문제인 독립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하였으며 결국 마사릭 박사의 경험은 이박사가 위

싱턴에서 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마사릭 박사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압제로부터 그의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오래전부터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임병직 1998, 13-14).

물론 이승만이 1918년에서 1919년 사이 마사릭과 여러 방면을 통해 교감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두 인물이 물리적인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은 낮다. 마사릭은 1917년 체코슬로바키아군단 이송을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1918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한반도, 일본 통해 미국으로 가서, 윌슨과 회담을 갖기에 이른다. 이후 같은 마사릭은 대통령에 임명되어 1918년 12월 21일에 프라하로 돌아왔다(Prague Castle 2021/02/11). 따라서 이미 프라하로 귀국한 마사릭과 1918년에는 하와이에 있었고,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 참가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승만이 직접 토론을 했다고 상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임병직이 이에 대한 기록을 한 바,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교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재필, 이승만 등이 주도한 제1차 한인회의가 진행된 필라델피아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한국이 독립의지를 공유한 장소였다. 1918년 미국에 도착한 마사릭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필라델피아 독립관(Independence Hall)에서 ‘중부유럽제민족의 공동목표선언(Declaration of Mid-European Union in Philadelphia)’을 발표하여, 중부유럽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촉구했고, 같은 장소에서 6개월 후 한국인들도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를 개최한 것이었다. 독립관을 배경으로 독립을 호소하는 사진은 두 국가의 중요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면으로 남아있다. 당시 *Philadelphia Record* 신문에서는 이에 대해 “체코슬로바키아가 몇 개월 전에 그러했듯, 오늘 자신들의 조국의 독립을 선포하기 위해 독립관에 모인 대한민국 대표들”이라고 언급했다(김학은 2013, 357).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지도자들이 독립의 정신과 의지를 발표하는 공간을 공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1933년 이승만은 실제 마사릭과 만남을 모색했던 기록을 남긴다. 이승만은

16) 1920년대 언론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부유럽선언과 제1차 한인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허버트 밀러(Herbert A. Miller) 교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29년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밀러 교수가 입국했음을 소개하며 “사회학의 권위로서 국제적 성명이 높은 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당시 고문이며,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마사릭과는 벗이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학생들 간에는 밀러 교수를 독립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소개했다. 밀러는 “조선인으로서의 현재 열강의 문명을 힘써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기회라도 오면 이용할만한 실력이 필요하다”(『東亞日報』 1929/08/22)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1933년 스위스의 제네바국제연맹 총회 참석 후 “러시아 고위층을 만나고 그곳의 한인지도자들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시베리아”(이승만 1933/04/28, 2015, 190)로 향했다. 이때 이승만은 6-7월 간 런던, 파리, 제네바, 비엔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를 거쳐 모스크바로 들어갔다. 당시 이승만은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 들른 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보인다 … 부다페스트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곳은 오스트리아보다 더 부유해보였고, 시내는 어디를 가든 사람으로 붐볐다”(이승만 1933/07/11, 2015, 205-206)라며 두 국가를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에 대해서는 “철길을 따라 이어진 폴란드의 농가들은 대부분 초가지붕이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보다도, 러시아의 가장 가난한 농가보다도 더 가난해 보였다”라며 가난한 폴란드의 인상을 기록했다.

이승만은 모스크바 도착 후 소련 당국의 결정에 따라 강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귀환하며 체코슬로바키아와 마사리를 언급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로 가서 타우(주오스트리아 중국영사)씨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베네시 총리를 만나면 마사릭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돌아갈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 결국은 시외의 값싼 조그만 호텔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승만 1933/07/22, 2015, 215).

이 기록은 유라시아 양극단의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두 정치지도자의 중동유럽에서의 회의 기회가 이승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소멸된 것이기도 했고, 보다 본질적으로 마사릭과 만남이 당시 독립을 위해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이승만이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유럽을 방문 중 해당 국가의 정치지도자 이름을 기록하며, 만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오직 마사릭이 유일했다. 이는 그만큼 한인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마사릭이 갖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¹⁷⁾

1937년 한국언론에서는 마사릭의 위중한 병 상태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다. “9월 12일 아홉시부터 폐렴이 병발하여 위독상태를 계속하고 있던 중 14일 오전 3시 29분에 마침내 87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하며, 마사릭이 공부한 대학, 정치활동, 외교활동과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정리(『東亞日報』 1937/09/16)하며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한국인들에게

17) 이승만의 중동유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된 그의 아내 프랜시스카(Franziska Donner)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국의 제국적 방식과 “다른 자신의 독립적 일생을 통해 동서문명의 융합을 체현”한 프랜시스카에 대해서는 김명섭(2021).

전설로 기억되던 유라시아 반대편의 지도자를 추모했다. 이처럼 1920-30년대 한국인들에 있어서 마사릭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으며, 대표적인 저술은 백낙준이 작성한 「체크 국부 마사릭 박사」와 「건국시대의 마사릭」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마사릭 전설’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고, 마사릭의 존재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김학은 2013, 53-54). 마사릭에 대한 윤치호의 평가, 백낙준의 마사릭의 삶과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방략에 대한 서술, 이승만의 기록은 단순한 해외 이슈에 대한 단상이기 보다 당대의 지식인들의 독립목표를 체코슬로바키아의 상황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베네쉬에 대한 인식

마사릭 사망 후, 언론은 제2대 대통령이 된 베네쉬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다. 베네쉬는 프라하 축구팀 슬라비아클럽(Slavia Prague Football Club)의 대표 선수였고, 프라하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디종(Dijon)대학에서 1908년 법학박사 취득했으며, 1912년 카렐4세대학 사회학 교수 등을 역임한 이력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기 마사릭과의 외교독립운동, 그리고 파리평화회의 시기 그의 정치적, 외교적 수완, 그리고 마사릭으로부터의 사상적 영향을 기록했다. 또한 1920년 8월 프랑스와 남슬라브, 루마니아가 소협약국을 성립한 것, 1924년 제네바의정서, 1925년 로카르노조약(Pact of Locarno) 등이 베네쉬의 외교성과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국제연맹 대표로서 서유럽국가들에 대한 충실한 자세와 소련과 통상관계 구축 등 슬라브국가들과의 친교 유지가 그의 외교정책의 핵심이었음을 언론은 짚었다. 마지막으로 성격에 대해서 “얼핏보면 조금 겁쟁이 같기도 하고, 비활동가 같이 보이나 사실은 정반대로 비상한 용기와 열정을 가진 활동가”(『東亞日報』 1936/01/30)라고 하며 베네쉬의 여러 측면을 다층적으로 정리했다. 1920-30년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마사릭 전설’과 같은 독립의 상징인 마사릭 대통령 후임으로서 베네쉬에 대한 기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언론은 1938년 9월 수데텐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베네쉬에게 집중했다. 1938년 7월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지역에 대한 독일 할양에 대한 영국의 인정 결정에 대해 베네쉬는 맹렬하게 반대했으나 영국정부의 수차례 교섭에 의하여 결국 수락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했다(『朝鮮日報』 1938/07/27). 9월 28일

에는 독일이 영국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하며, 히틀러(Adolf Hitler)가 “베네쉬가 장본인”이라며 수데텐문제의 책임을 베네쉬에게 돌리며 체코의 민족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東亞日報』 1938/09/28). 9월 30일 언론에서는 베네쉬에 대해 “국제연맹에 있어서는 위대한 존재”로서, “중유럽(중구) 문제의 일대 권위로서 활약 … 체코국 제2대 대통령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으나 그는 아직 비서나 타이피스트를 두지 않고 연설초고도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 회유의 정력적 정치가”(『東亞日報』 1938/09/30)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베네쉬 대통령을 활발하게 다룬 기사는 1938년까지였고, 수데텐지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 강제병합 이후 베네쉬는 한국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1940년대 베네쉬의 기록은 일제시기 목사였고, 함경북도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배민수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배민수는 1941년 9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신학자 호로마드카(Josef Lukl Hromádka)와 양국의 사정을 교감하며 가깝게 지냈다(배민수 1999, 287). 1943년 마사릭의 아들 얀 마사릭(Jan Masaryk) 외무장관이 프린스턴대학에서 연설했고, 배민수는 그에게 한국을 도와달라 요청했다. 이후 배민수는 호로마드카가 자신에게 베네쉬의 중재로 소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기록한다. 배민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사상을 지양했다고 판단했고, 미국은 소련과의 협조에 부정적이지만, “한국이 이제 다른 많은 사상들을 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배민수 1999, 288-289), 필요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과 협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배민수는 샌프란시스코안보회의에서 이승만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바랬으나 이승만은 “호로마드카 박사가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체코는 너무 친러적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배민수는 “이 박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과 협력하여 공산 세력에 대항”(배민수 1999, 289)하기를 바랐다고 기록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이 경교한대로 친소 성향의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화되었고, 배민수는 얀 마사릭의 죽음, 베네쉬 대통령의 추방, 공산화를 기록하며, “체코와 같이 많은 희생자가 난 곳에서 국민과 나라가 통째로 적국에 넘겨지는 것은 정말 슬픈 상황이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의 결과로 소련에 넘겨져야 하는가? 체코의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투표라도 한 것일까?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체코의 민주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당면한 문제”(배민수 1999, 289)라고 기록했다.

사실 배민수가 언급한대로 베네쉬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스탈린(Joseph

Stalin)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베네쉬는 소련과의 동맹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1943년 소련과의 동맹을 맺었다(Orzoff 2009, 199). 뮌헨협정을 통해 서유럽에 크게 실망한 베네쉬는 소련과 서방국가 간의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 또한 전시 영국의 경험을 볼 때 서구는 전쟁 후 더욱 사회주의화가 될 것이며, 소비에트체제는 자유주의 개혁이 활성화될 것(Zeman 1997, 189)이라는 이상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베네쉬의 이러한 바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 정책이 진행되며 현실화되지 못했다.¹⁸⁾

IV. 제2차 세계대전기 독립을 위한 의지의 공유

1.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지역의 독일 할양문제는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국제정세였으며, 일제시기 동안 언론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기사량은 1938년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독일 전체주의의 확장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응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1938년 9월 히틀러는 350만 수데텐 거주 독일인의 궤멸 위기에서 독일인들을 구하기 위해 “독일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절대로 수데텐 독일인을 지지할 결의”를 세우고 있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임을 언론은 전했다(『東亞日報』 1938/09/15).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수데텐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독일인과 경찰

18) 주체코슬로바키아 미국대사관에서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대략 80%는 공산주의 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U.S. State Department. “The Chargé in Czechoslovakia to the Secretary of State.” secret, Praha, January 28, 1948, FRUS. 하지만 수데텐지역의 할양과 독일에 의한 병합을 경험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에 경도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 전선을 중심으로 전후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코시체프로그래프(Košický vládní program)을 가동시켜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독일인들과 헝가리인들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배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은 가장 규모가 큰 농민당 등을 압도할 수 있었으며, 결국 1948년 ‘2월혁명’으로 공산화과정을 일단락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벨벳혁명의 주역인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네쉬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 뮌헨협정에서처럼 또다시 전체주의에 굴복했음을 지적한다(하벨 2016, 245).

이 권총으로 충돌하여 경찰 4명, 독일인 2명이 사망했으며, 탱크가 배치되어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東亞日報』 1938/09/15).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9월 21일 수데텐 분할에 관한 영국·프랑스 공동해결안 수락을 발표했다. “체코정부의 굴복으로 22일 제2차 히틀러, 체임벌린 양 거두의 회견에 의한 수데텐 지방의 할양은 확정되고 전 유럽의 대위기도 해소”(『東亞日報』 1938/09/23)를 기대했다. 이 수데텐 할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 돌입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수데텐지역 할양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인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자결권 문제로 확대됨을 언론은 인식했다. 수데텐 독일 할양이 결정되자 체코슬로바키아 내 약 10만 폴란드인들도 자결권을 요구했으며, 9월 20일 폴란드와 접경한 테션(Těšín)지역의 폴란드인 약 3만 명이 시위를 시작했고, 시위는 폴란드 도시로 확대되었다. 테션지역 독립은 폴란드 내 정치적 입장이 다른 각 신문들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며, 폴란드의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주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체코 국내의 폴란드 소수민족 자결권 요구는 폴란드의 거국일치(舉國一致)의 운동으로 변화”(『東亞日報』 1938/09/23)하고 있다 보도하며,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문제에는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까지 가세하며 더욱 거센 동유럽의 혼돈 상황이 보도됐다.

1938년 9월 30일 언론은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양으로 삼아 독일과의 갈등을 평화적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내의 대립 의견을 소개하며, “베네쉬 대통령은 소위 세계평화공헌이라고 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영불양국과 같이 자중론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친소파로 지목되는 현 수상 시로비(Jan Bohumír Syrový) 장군 이하 참모본부 간부급에서는 주전론이 상당 강경하다”(『東亞日報』 1938/09/30)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통해 언론이 수데텐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국내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둘러싼 대립 양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윤치호 역시 1938년 9월부터 수데텐지역의 갈등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기록했다. “수데텐은 체코슬로바키아 서북부에 있는 부유한 지역으로 독일인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히틀러는 독일에 인접한 이 지역을 원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내주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을 차지하겠노라고 위협했다. 수데텐은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유발할 제2의 사라예보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에게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설득했다. 좋은 생각"이라 하였으나 곧 "그런데 왜 영국과 프랑스는 베르사유조약 덕분에 차지한 독일의 식민지들을 돌려주지 않는 거지?"(윤치호 1938/09/30, 2001b, 419)라며 체코슬로바키아를 볼모로 한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방식이 절적인 측면은 있으나, 손해가 예상되는 자국의 지역에는 통용되지 않는 이중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지적했다.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지배 야욕을 드러낸 히틀러는 프라하 입성 하루만인 3월 16일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호령을, 슬로바키아 분리주의자들을 이용하여 3월 14일 슬로바키아 독립국을 선포했다. 슬로바키아 독립국의 첫 정책은 슬로바키아에서 체코인들을 추방하는 것이었다(Čornej, Petr and Pokorný 2015, 57-59). 언론은 독일이 보호령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주권을 무력화했고, 슬로바키아의 자치요구를 통해 국가분열을 주도했음을 보도했다(『東亞日報』 1939/03/17). 건국역사가 20년 밖에 안 되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수데텐, 테센 영토를 잃고, 결국 "보헤미아, 모라비아 양 지방은 독일에 합병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어 체코슬로바키아국이란 것은 세계지도 상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독일의 동진정책은 완전히 성공적"(『東亞日報』 1939/03/18)이 되었다고 반어표현으로 비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은 1939년 3월 1일 일기에 "체코가 멸망했다"라고 작성했다. 유럽문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은 그의 메모에서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문제를 기술한 것은 특수한 상황인식에 따른 기록이었다.¹⁹⁾

1939년 3월 『東亞日報』 정치부 기자 고영환은 체코슬로바키아 병합 이유에 대해 "폴란드의 동남부와 소련의 서남부에 걸쳐있는 우크라이나라는 지방이 물산(物産)이 많이 있고, 또 땅속에는 철과 석탄 같은 것이 많이 묻혀있는 지방을 욕심내고 있는데 체코라는 나라가 그 가운데 걸쳐 있으므로 이 체코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까닭으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시켜 버린 것"(고영환 1939/03/21)이라 밝혔다. 고영환의 분석은 윤치호와 유사했다. 윤치호는 히틀러가 "굶주린 늑대"같은 독일이 "작년 여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노른자인 수데텐 지방을 귀속시켰다. 며칠 전에는 프라하로 진격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독일의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동방진출을 도모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주요 목표"(윤치호 1939/03/19, 2001b, 434)라 언급했다. 고영환과 윤치호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강제병합이 동진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임을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 "조소앙. 「趙素昂日記」." 국사편찬위원회.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권: 서한집 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는 같은 날 일기에서 독일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도둑이야!”라고 외칠 뿐 독일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윤치호는 1939년 4월 일기에도 베르사유조약 체결 당시를 회상하며, “프랑스는 독일을 장기간에 걸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샤일록(Shylock)처럼 행세했다. 만일 프랑스가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독일에 좀 더 너그럽게 대했다라면, 유럽은 오늘날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윤치호 1939/04/10, 2001b, 436)이라 기록했다. 윤치호는 침략국으로서 독일에 대한 비난 못지않게 이를 방관했거나, 독일의 유럽에 대한 보복의지 조절에 실패한 서유럽 국가들을 함께 비난했다.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이 맺어지기 5개월 전인 1939년 3월 하순 언론은 소련이 독일에 대한 전쟁을 우려하며 수동적인 입장을 나타냄을 확인했다. 독일의 동유럽 진출과 세력 확장을 우려한 스탈린은 “180만의 적군(赤軍)과 9,000대의 비행기를 상비”한 소련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지만, 소련의 각 신문들은 체코슬로바키아 문제에 있어서 소련정부가 모든 방면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일의 비위를 맞추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보고했다. 언론은 독일에 대한 소련의 수동적 대처는 소련의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東亞日報』 1939/03/31)이라고 보도했다. 1939년 4월 기사는 독일의 팽창을 우려하는데, 독일이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이래 대독일을 건설했고, “기세를 이용하여 10월에는 약 350만의 독일민족이 거주하는 수데텐을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에서 탈퇴하였다. 물론 이 수데텐의 획득에는 영국수상 챔벌린씨의 체코 정부와는 일언반사의 사전 상의도 없는 독단적 앞선의 힘이 유효하였으나 역시 민헨협정이란 일장회의의 결과였다”(『東亞日報』 1939/04/02)라며 보도하고 있었다.

1939년 9월 윤치호는 유럽의 전황에 대해 “누군가 히틀러에게 중부유럽의 나라들에게 미친개처럼 구는 까닭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행복과 번영을 파괴해야만 독일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미친놈이 지배하는 나라와 인접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라들의 수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을 파괴”했다며, 독일이 번영하지 못할 것(윤치호 1939/09/19, 2001b, 444)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독일의 바르샤바 함락에 대해 “아름답던 도시는 분명 잿더미로 변했을 것이다.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윤치호 1939/09/27, 2001b, 444)라고 하며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병합하며 자행한 잔혹함을 고발했다. 194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1943년 2

월 “서유럽 어느 나라가 히틀러를 돕기 위해 일어서겠는가. 히틀러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먹어치웠”(윤치호 1943/02/22, 2001b, 494)지만, 동부·서부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1940년 7월 언론은 1939년 3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무혈병합’한 이후 변화를 보도했다. 우선 독일은 우수한 무기제조로 유명한 스코다 공장을 포함해 30여 군수공장을 합병하며, 고도로 산업화된 문명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 보호령에 따라 발전이 정체하였다고 보았다. 경제적 특징으로서 프라하 저축은행의 예금고가 1939년 말에 비하여 12.6% 감소하였고, 철강 사용은 금지됐다. 또한 미술품의 붐이 일어나 “졸렬한 작품이라고 마구 팔려”나갔는데,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체코문화 존중의 증거라 했지만 사실 화폐가치 감소로 나타나는 시장 이상현상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철도운임이 15%에서 20% 상승했음을 보도했다(『東亞日報』 1940/07/29). 이는 한국인에게 선망의 존재였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전체주의 국가에 병합당한 후 일상의 경제적 조건이 얼마만큼 구속하고, 박탈당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었다.

2. 공유된 독립을 향한 의지

1940년대 민족의 독립과 자강을 위해 노력한 한국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위한 과정에 주목했다. 1939년 10월 한국언론은 베네시의 프랑스 활동에 대해 보도했다. 베네시는 폴란드망명정부와 유사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를 프랑스에 재건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주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공사와 프랑스 내 체코슬로바키아 육군의 재건준비를 인정한다는 협정문에 조인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에 대해서도 승인할 것을 예상했다(『東亞日報』 1939/10/08).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2년 3월 1일 제23주년 3.1절을 선언하며 비록 약소국이지만 독립을 유지한 국가가 50여 개 있음을 강조했다. 그중 “나치가 발광적으로 살육을 좋아한 이후” 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 등이 영토, 국민과 주권을 상실했으나, 영국정부가 1940년 7월 21일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를 정식 승인했고, 1941년 7월 18일 소련주영대사는 소련 내 체코슬로바키아국민군 조직을 허가했다. 중국 외교부의 체코슬로바키아 런던정부 승인(1941년 8월 26일), 소련정부의 소련·체코 군사협정 체결(1941년 9월 27일), 미국정부의 런던정부 승인(1941년 7월 30일)이 보도됐고, 이는 “베네쉬 총통 주재하의 체코정부를 이룬 것”²⁰⁾이라 표현됐다. 한국인들은 독일의 병합에 따른

체코슬로바키아 처지의 동정적 입장에서 전환하여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의 국제적 승인이슈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활용하려 시도했다.

194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서재필은 연합국이 기본적으로 인력, 자원, 공업, 생산력에서 우수하며, 전쟁의 목적을 정의와 공평에 두고 있지만, 전체주의국가의 이웃국가 침략에 대해 묵인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하도록 내버려 둔 것과 일본이 한국과 만주와 북중국을 침략한 것을 인정 혹은 묵인한 것”이 그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은 이미 미군에서 복무하는 한인들을 찾아볼 수 있듯 군사적으로도 한인들이 연합군을 지원하길 원했고, 이승만이 전심전력하는 워싱턴의 외교위원부에 한국인들이 원조할 것을 당부했다(서재필 1942/07/23, 2010). 서재필은 뮌헨협정에서의 연합군의 실수를 지적하며, 체코슬로바키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고, 한국인들이 이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연합군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1942년 3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워싱턴 라파예트호텔에서 한인자유대회(Korean Liberty Conference)를 개최했다. 대서양헌장을 기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며 시작된 이 대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주미외교위원부 법률고문 스태거즈(Jhon W. Staggers)는 이승만의 대한독립에 대한 열정을 소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투쟁의 역사를 되짚었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와 12개국의 독립선언이 1918년 필라델피아에서 조인되었고 승인받았지만, 한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원칙을 유지하기를 요구했다. 또 이 회의에서 서재필은 주미 체코슬로바키아공사 폴로드나(Josef V. Polodna)의 서신을 대독했다. 폴로드나는 나치독일에 의해 침탈당한 자국의 상황에서 코리아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심정을 깊게 공유함을 강조하며, “얀 후스(Jan Hus)·얀 아모스 코멘스키(Jan Amos Komenský)·토마쉬 마사릭의 나라인 우리나라와 같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귀국도 지금의 암흑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믿는다”²¹⁾라고 언급했다.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종교, 교육, 정치에 민족정체성을 한국인들과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20) “제23주년 3.1절 선언(1942/03/01).”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권: 정부수반』.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2. 『한인자유대회 회의록(Korean Liberty Conference)』.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국 간 공감과 더불어 한국-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 간 소통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국민당 기관지 『韓民』은 약소민족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 방안을 모색하며 유일한 무기를 국가 간 단결로 꼽았다. 그 중요한 사례로서 “체코의 멸망 당시 폴란드는 구조는 커녕 체코의 영토침탈을 모색했는데, 오히려 폴란드가 체코와 독일에 대적했다면, 소련과 프랑스가 체코를 도왔다면, 폴란드의 안전과 국제정세의 위기가 해소되었을 것”이라 분석했다.²²⁾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창설을 자축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의 역할을 재확인했는데, 마사릭은 군단을 이끌고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그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연합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세울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²³⁾ 이는 한국광복군 창설의 목적과 활용에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이 주요 선행사례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는 1941년 대일선전포고 이후 1942년 1월 중국에 대해 임시정부승인 요청 문서를 보냈다. 그 내용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역사적 도의(道義)를 고려한다면 한국임시정부 미승인은 유감임을 밝혔다. 김구는 중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상황을 언급한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폴란드 혹은 체코 민족 중에서 사상과 정견의 다름으로 그들의 정부를 반대하는 자가 일부분이 있으나 영국은 끝까지 폴란드나 체코에 대한 원조를 그들 중의 소수 인민의 반대로 인하여 유예하지 않았습시다. 진실로 어느 민족의 해방운동을 막론하고 … 대체로 우방의 크나큰 원조에 많이 의뢰되어야만 비로소 성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장래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가입하는 날 시베리아 방면에서는 적색한국정부의 조직이 출현될까 걱정스럽습시다”²⁴⁾라고 언급하였다. 김구는 체코슬로바키아광명정부가 영국의 지원 아래 승인된 것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과 승인을 중국정부에 요청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산주의 세력강화를 우려했다.

또한 1943년 2월 20일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은 ‘대중화민국 외교부장 송쑤원(宋子文)에게 ‘한국광복군9개행동준승(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지하고

22) 嚴大衛.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약소민족이 마땅히 가져야할 각오.” (1940/04/25). 『韓民』. 1(2).

23) 重慶. “사설－한국광복군 성립을 축하하며.” (1940/09/19). 『大公報』.

24) “金九가 中國最高當局에 韓國臨時政府 承認에 관한 節略.” (1942/01/30).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6권: 임정편 XI』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대신 ‘중한호조군사협정(中韓互助軍事協定)’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그 이유로 양국의 우호관계, 건국강령, 대서양헌장에 근거한 이유와 더불어 서방국가의 선례를 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체코민족위원회와 폴란드국민군이 임시정부와 교전단체로 인정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혁명외교 원칙 수립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상황이 당시의 체코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이 조속히 필요함을 역설했다.²⁵⁾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입장은 체코슬로바키아 경우 군단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건군을 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⁶⁾

1943년 2월 10일 조소앙은 주중국 체코슬로바키아대사에게 전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연합국이 전쟁이 끝나기 전, 망명한 모든 정부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완전한 독립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야” 전후 연합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최대 지원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고, 이 내용을 워싱턴에 전해줄길 요청했다.²⁷⁾ 1944년 7월 5일 주중국 체코슬로바키아대사는 조소앙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1944년 6월 26일의 서한과 성명서에 감사를 표시하며,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국민과 더불어 가장 성실한 동정을,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각자가 쏟는 노력과 투쟁에 대하여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적을 격멸할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은 동시에 각하의 수난과 고귀한 국민들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임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장 각하께서는 저의 최상의 존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²⁸⁾라며 외교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지지했다. 이후 1944년 10월 31일 주중국체코슬로바키아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한국정부가 축하를 보내고,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의 지위가 대사관으로 승격된 것과 제가 중국주재 체코슬로바키아 대사로서 임명된 것을 축하해 주었던 각하의 10월 25일자 서한을 받고 저는 지

25) 조소앙. “9개 행동준승 폐지를 요청하는 公函.” (1943/02/20).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권: 한국광복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6) “광복군 교섭에 관한 第2次會商 內容略錄.” (1944/06/30).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권: 한국광복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7) “大韓民國 臨時政府 趙素昂 外務部長이.” (1943/02/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28) “重慶 大韓民國 臨時政府 外交部長.” (1944/07/0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극히 감동된 바 있었습니다. 각하의 친절하신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하께 바라건대 제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각하의 국민들이 조속히 자유를 찾고, 각하의 훌륭한 국가가 행복에 찬 미래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께 다시 한 번 저의 높은 존경을 보냅니다.²⁹⁾

제2차 세계대전기 비록 양국 정부가 실제 국가 독립을 위한 상호 교류의 물리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타국에 임시정부를 설치한 제한적 상황에서 공적인 성격의 문서를 통해 그들이 교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식적 공유를 나눴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합국에 대한 임시정부 승인과 전후 독립 보장을 요청하는 문제에 체코슬로바키아가 보조를 맞춰주기를 간곡히 요청했고, 중국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승격과 같은 사안에 대해 기쁨을 나누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한국의 독립의지와 노력에 대해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사실에서 양국의 독립을 향한 공동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⁰⁾

-
- 29) “重慶 駐在 「체코슬로바키아」 大使가.” (1944/10/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 30) 이 시기 비록 독립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으나 양국 간 중요한 문학적 교류도 확인할 수 있다. 고고학계의 선구적 학자인 한흥수(韓興洙)는 일본에서 수학 중 1936년 오스트리아 빈(Wien)대학으로 유학했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스위스로 옮겨 학업을 이어갔다. 1942년부터 프라하의 동양학연구소 업무를 시작하며 1948년까지 프라하에 계속 머문다. 한흥수는 제자이자 프라하 까렐대학 한국학과 창설을 주도한 알로이스 풀트르(Alois Pultr)와 김남천의 『대하』를 체코어로 번역했다. 이전에 1931년 뉴욕에서 영어로 씌어 진 강용홀의 『초당』이 1933년 프라하에서 출판되었지만, 한국어를 체코어로 번역한 책은 『대하』가 처음이었다. 『초당』과 『대하』는 함경도와 평안도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조선의 자연과 개화기의 풍속을 그리고 있었다. 이후 한흥수는 1948년 평양으로가 북한 고고학계와 박물관학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양문규 2016, 176-181). 하지만 한흥수는 북한에서도 1953년 숙청된 후 그의 업적은 삭제되었다. 까렐대학 홈페이지에서는 한흥수를 “체코슬로바키아 한국학의 아버지”라고 묘사한 문현(Miriam Löwensteinová, *Han Hung-su: Otec Československé Koreanistiky*. Nová vlna. 2014)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문헌에서 한흥수는 “나는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을 경험했지만, 나의 체코 친구들이 가장 나를 이해했고 나도 그랬다”라고 언급했다 (<http://korea.ff.cuni.cz/en/node/515>. 2021/08/23 검색). 정치활동에 있어서 양국의 인식 공유가 존재했던 것처럼, 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일제시기 한국인들이 독립의 모델로 인식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1차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1800년대 후반 윤치호는 기독교 중심의 서구 문명을 지향했으나 폴란드의 침탈과정에 주목하며 서구 중심의 한계를 인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한국인들이 인식의 중심에 들어섰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독립한 사실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이자 독립의 현실적 모델이 된 것이었다. 한국지식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민족의 독립은 실력양성과 국제정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30년대 한국인들은 기독교신앙과 민족독립운동을 연계했는데, 이를 위해 신체와 정신의 단련 방식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을 활용했다. 또한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세계적 군수산업은 자강의 기반으로서 한국인에게 전망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시기 한국인들에게 마사릭은 일종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인식되었다. 백낙준은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을 조직하여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국가독립을 달성한 마사릭의 정치력과 외교활동에 찬사를 보냈다면, 윤치호는 마사릭의 개인적 역량 보다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높은 지적수준과 국제정세의 변화가 독립의 견인 요인임을 강조했다. 임병직은 이승만과 마사릭 사이의 독립의지가 공유됐음을 기록했고, 실제 1918년과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는 두 정부의 독립운동이 연달아 진행되었다. 1933년 이승만과 마사릭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승만의 동유럽 방문기에 등장하는 동유럽 정치지도자의 이름은 마사릭이 유일했다. 한국인들은 마사릭 사망 후 그와 사상적으로 연계된 베네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으나, 마사릭과 달리 베네쉬는 소련과의 우호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공산화를 막지 못했다.

일제시기 동안 언론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기사는 1938년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수테텐문제로 촉발된 독일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언론은 수테텐문제부터 폴란드 실지회복 운동, 슬로바키아 분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병합된 1939년 3월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서재필과 윤치호는 독일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독일의 주변국 침략을 방관한 서유럽 국가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주요 사례로 활용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국에 대한 한국 지원 요청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동

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한국의 독립 의지와 노력에 대해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사실에서 양국의 독립을 향한 공동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시기 한국인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은 국가를 수립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선망으로부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기 독립을 향한 의지를 상호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해갔다.

참고문헌

1차·준1차자료

- 고영환. “체코국의 흥망.” 『東亞日報』 1939/03/21.
- 國民大會. 1919. “嗚呼痛哉 我二千萬同胞.” 1919/03.
- 國史編纂委員會. 1990.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 1 / 三一運動』.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 _____. 2001.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권』.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권: 정부수반』.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권: 한국광복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권: 서한집 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6권: 임정편 XI』.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 國會圖書館 편. 1979. 『韓國 民族運動史料: 三一運動篇, 其3』. 서울: 國會圖書館.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 <http://db.history.go.kr/> (2021/01/25 검색).
- 白樂濬. 1931. “建國時代의 마사리, 체크 국부, 토마쓰 마사리 傳士.” 『東光』 19.
- 서재필. 2010. “한인동포들에게 보낸 공개편지(1942/07/23).” 『서재필이 꿈꾼나라』. 서울: 푸른역사.
- 宋鎮禹. 1934. “억센 朝鮮, 굳건한 民族.” 『新東亞』 1934/03.
- 嚴大衛. 1940.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약소민족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각오.” (1940/4/25). 『韓民』 1(2).
- 이승만. 2015. 『국역 이승만 일기 : 1904~34 & 1944』.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승만연구원.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2. 『한인자유대회 회의록(Korean Liberty Conference)』. 재미한족연합위원회.
- 重慶. 1940. “사설-한국광복군 성립을 축하하며(1940/09/19).” 『大公報』.
- 한국통신부·한국친우회. 1919. 「한국의 독립」.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 U.S. State Department. “The Chargé in Czechoslovakia to the Secretary of State.” secret, Praha, January 28, 1948, *FRUS*.

- “독일의 중구패권 확보.” 『東亞日報』 1939/03/17.
- “독일의 팽창과 구주.” 『東亞日報』 1939/04/02.
- “독일의 체코 합병으로 소스탈린 俄然軟化.” 『東亞日報』 1939/03/31.
- “독이(獨伊) 점령 이후의 체코와 알바니아.” 『東亞日報』 1940/07/29.
- “動亂火口 체코 문제수폭발.” 『東亞日報』 1938/09/15.
- “북경에서 발행된 영문 신문에 실린 글.” 『朝鮮獨立新聞』 第六號. 1919/03/15.
- “베네슈가 장본인, 수녀의 의견청취, 영안수락.” 『東亞日報』 1938/09/28.
- “베네슈 대통령.” 『東亞日報』 1938/09/30.
- “비상시세계의 군수공업전망 十四.” 『東亞日報』 1934/03/06.
- “時事解説, 獨靚 兩國軍備.” 『朝鮮日報』 1938/09/17.
- “新語解釋 소콜.” 『朝鮮日報』 1932.
- “신춘에 전하는 구주 위기설.” 『東亞日報』 1931/01/08.
- “신홍 체코슬로바키아의 군비.” 『東亞日報』 1935/08/25.
- “오지리의 동란.” 『東亞日報』 1927/07/19.
- “정부재건? 베네슈씨 파리에서 활동.” 『東亞日報』 1939/10/08.
- “조선이 낳은 10대 운동가, 쏘콜난.” 『동광』 29. 1931/12/27.
- “조선체조연맹 결성.” 『每日申報』 1945/09/28.
- “주테덴문제 해결책, 체정부, 영제안 수락.” 『朝鮮日報』 1938/07/27.
- “지방분할 확정, 체코정부전적 굴복으로 전구주위기 해소.” 『東亞日報』 1938/09/23.
- “체코 대통령 암살범인 체포.” 『東亞日報』 1925/08/07.
- “체코 독립의 부, 밀터 교수입경.” 『東亞日報』 1929/08/22.
- “체코 국내 10만 파(波)인, 단호 자결권 요구.” 『東亞日報』 1938/09/23.
- “체코국의 해체.” 『東亞日報』 1939/03/18.
- “체코문제의 긴박.” 『東亞日報』 1938/09/15.
-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의 부로 추앙받는 전대통령 토마스 마사릭 박사는 병으로 누워있는 중.” 『東亞日報』 1937/09/16.
- “체코국 신대통령 에드워드 베네슈.” 『東亞日報』 1936/01/30.

2차자료

- 고정휴. 2012.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기사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 김명섭. 2021. 『푸렌시스카 사진의 한국사 I』.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김상태. 2001.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와 한국 근대사.” 윤치호. 『윤치호일기 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 김승배, 김명섭. 2012. “베르사유평화체제의 ‘보편적 표준’과 한국과 일본의 이몽(異夢): 민족자결원칙과 국제연맹규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2).
- 김학은. 2013. 『이승만과 마사리크』. 서울: 북앤피플.
- 민경배. 1994. “윤치호의 역사적 위치.” 윤치호 지음, 윤경남 옮김. 『국역 윤치호 서한집』. 서울: 호산문화.
- 반병률. 2010. “러시아(소련)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식.” 『역사문화연구』 35.
- 배경한.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중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 배민수. 1999. 『배민수 자서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바츨라프 하벨. 2016. 『불가능의 예술』.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야로슬라브 올샤, jr. 2011. “한국을 여행한 7명의 체코인 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1901년 체코인 브라즈의 서울 방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양문규. 2016. “체코의 『대하』 수용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현대문학의 연구』 59.
- 양준석. 2018. “마사리크와 이승만의 민주주의, 기독교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동유럽발칸연구』 42(3).
- 윤치호. 1994. 『국역 윤치호 서한집』. 서울: 호산문화.
- _____. 2001a. 『국역 윤치호 일기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b. 『윤치호일기 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3. 『국역 윤치호 일기 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4.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 윤치호일기 제4권 1896년』. 서울: 신앙과지성사.
- 임병직. 1998. 『임정에서 인도까지 임병직 장관 회고록』. 서울: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 조병옥. 2003. 『나의 회고록』. 서울: 도서출판 선진.
- 케네스 웰스. 2017. 『새하나님 새 민족』. 서울: 순교자의 소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 “십자가당사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987> (2021/02/15 검색).
- 한시준. 2009. “중경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 홍선표. 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황정식. 2011. “팔라츠키와 체코 민족운동.” 『동국사학』 51.

영문자료

- Bradley, John. 1990. *The Czechoslovak Legion in Russia 1914 - 1920*. Boulder: East European Monographs.
- Charles University. 2014. “Han Hŭng-su, Father of Czechoslovak Korean Studies.” <http://korea.ff.cuni.cz/en/node/515> (2021/08/23 검색).
- Čornej, Petr and Pokorný, Jiř. 2015. *A Brief History of the Czech Lands*. Praha: Prah.
- Klőslová, Zdenka. 2003. “Czech arms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rchiv orientální: Quarterly Journal of African and Asian Studies*, 71(1).
- Masaryk, Tomáš Garrigue. 2009. *The Making of a State Memories and Observations, 1914-1918*. New York: Frederick A. Stokes company.
- Orzoff, Andrea. 2009. *Battle for the Cas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ague Castle, “President of the CR.” <https://www.hrad.cz/en/president-of-the-cr/former-presidents/tomas-garrigue-masaryk/curriculum-vitae> (2021/02/11 검색).
- Zbyněk, Zeman and Klimek, Antonín. 1997. *The Life of Edvard Beneš: Czechoslovakia in Peace and War*.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Koreans' Perceptions of Czechoslovakia under the Japanese Rule

Joonseok Yang ■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fter achieving independence from the Austro-Hungarian Empire by the end of World War I, Czechoslovakia emerged as a realistic possibility of Wilson's idea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a model of independence for Koreans during the time of March 1st Movement. Koreans paid attention to nurturing competence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applied the Czechoslovak Sokol Movement to the national movement in the 1930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Koreans recognized Masaryk as a 'legendary' figure. While Lark-June George Paik(白樂潛) praised Masaryk's political and diplomatic skills, Yun Chi-ho(尹致昊) paid attention to the high intellectual level of Czechoslovak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yngman Rhee's attempt to meet Masaryk during his visit to Czechoslovakia in 1933 failed, but Masaryk was the only politician mentioned during his visit to Eastern Europe. Koreans carefully witnessed the process of German annexation of Czechoslovakia and criticized not only Germany but also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stood by and watched the annex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sed the international approval of the Czechoslovak Government in Exile as a prime example for its international approval, cooperated with Czechoslovakia in China, and shared their common aspiration for independence. Koreans' perception of Czechoslovakia under the Japanese rule began with an admiration for its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untry and developed into mutual sharing of the will for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World War II.

Key Words: Czechoslovakia, Japanese rule, Tomáš Masaryk, Sokol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